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보건행정경영학과	이름	곽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an Diego county
파견대학	California State University of San Marcos	파견기간	2018 fall, 2019 spring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샌디에고 중심부에서 엘에이로 가는 1/3 지점쯤에 위치한 San Marcos라는 작은 도시이다. 학교 크기는 순천향대보다 조금 작은 정도이다. 지리적인 위치때문인지 몰라도 히스패닉 친구들이 많았고, 캘리포니아라는 지역 특성 상 아시아인이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friendly 하고 날씨,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event들이 거의 매주 있어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활동적이다. 물론 시험 기간에는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임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
2018-2학기 수업	<p>Introduction of microeconomy (Prof. Abijin) 경제학수업 2,3 chapters 마다 퀴즈를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교수님이 직접 사이트에 올리시는 문제를 풀이하는 semi 에세이가 있다. 한학기 내내 계속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교수님도 좋으셨고 운 좋게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 좋아서 무난히 좋은 점수 받은 과목이었다.</p> <p>YOGA 말 그대로 요가 수업이었고, pass/fail수업이어서 7번 이상 결석시 fail을 받는 수업이었다. 아침9시에 있는 수업이지만, 가장 좋았던 수업. 교수님이 너무 친절하셨고 한명 한명의 자세를 신경써 주셨다. 4학년들이 많이 듣는 과목</p> <p>English syntax and grammer 영어 문장을 쪼개서 분석하는 수업. 한국의 영어수업 교육과 비슷한 수업이었다. 매주 과제가 있었고(모든 학생들에게 다른 문장을 수업 첫 시간에 주시고 그날 배운 내용으로 그 문장을 쪼개서 분석하는 과제) 조별활동도 간간히 있었고, chapter가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pre-testf를 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시험보는 날에 한장에 종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적어오면 볼 수</p>

	<p>있게 해주셨다(일종의 오픈북 시험) 교수님이 친절하셨고, international student임을 아시고 더 많이 챙겨주셨다.</p> <p>Immigration and health 수업이 교수님의 강의보다는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교수님이 수업 초반에 주제를 주시고, 관련된 영상을 보고 의견을 나누는 수업이었다. 수업태도를 평가하셨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나를 보신다. 시험은 없었지만 한번의 개인발표, 한번의 조별발표가 있었고, 교수님이 지정해주시는 세미나에 참여해서 보고서를 써야하는 과제가 학기에 3,4번 있었다. 전공수업이고 3,4학년이 듣는 수업이라 2018-2학기에 가장 힘들었던 수업이다.</p> <p>Music theory and history 우리학교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과 비슷한 수업이다. 매 수업시간 다양한 시대/장르의 음악을 듣고 교수님의 약간의 이론수업후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주된 수업방식이었다. 퀴즈와 시험이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제한시간 없이 온라인으로 보는 방식이라 큰 부담은 없었다. 샌디에고 심포니에 가서 공연을 보고 2번의 보고서를 내야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OT때 도서관에 가서 다같이 발급받은 학생증을 가지고 가면 기본 가격에 상관없이 10불에 관람가능.</p>
<p>2019-1학기 수업</p>	<p>Communication theory 커뮤니케이션 수업. 발표중심의 수업으로 조별발표를 하고 추가할 사항을 위주로 교수님이 수업하셨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온라인으로 봤고, 제한시간 2시간에 6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이었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형식이었다. 시험 이외에도 보고서를 2편정도 작성했다. 그러나 발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이었다.</p> <p>Global studies 1학년들이 듣는 수업이라 부담스럽지 않은 수업이었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수업이었다. 시험은 없었고 보고서 작성과 발표가 주를 이루는 수업이었다. 매주 그 다음주 주제에 해당하는 교재 article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에 올려야 하지만 크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바로 바로 손을들고 말을 하는 분위기였고 교수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 부담스럽지 않게 재밌었던 수업이었다. 첫 학기에 들었으면 좋았을 수업이다.</p> <p>Health and science (Prof. Keller) 공중보건학과 같은 수업이었다. 기초적인 보건학 과목들을 공부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보고</p>

	<p>오지선다형, 주관식, 서술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수님의 올려주시는 여러개의 articles중에 선택하여 2번의 에세이를 써야하고, 3번의 "Think about it" 이라는 단답/서술식 문제를 풀어 제출해야한다. 부담스러운 수업은 아니었고, 교수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 재밌게 했던 수업이었다. 옆자리 친구와 하루에 한번 이상은 생각교환을 했는데,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꽤 흥미로웠다.</p> <p>Health and society 가장 힘들었던 수업이다. 학기 전체에 걸쳐서 외부기관에서 사회봉사를 해야하는 수업이었는데, 기관 컨택부터 모든것을 학생이 알아서 해야하는 수업이었다. 강의명에는 Health and Society라고 되어있지만 health 분야보다는 society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수업이었다. 교수님은 너무 좋으셨지만, 힘들었던 수업</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일년에 비가 10번정도 오는 샌디에고 카운티. 한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않고 여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가 계속됨. 여름엔 평균 28~30도로 굉장히 덥다.
안전	밤에 친구들과 grocery store에 가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지만 미국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10시가 넘으면 웬만한 식당, 샵은 문을 닫아서 나가지 않는 편이 좋다.
숙소	<p>기숙사는 너무 비싸고 밀플랜드 비포함이라 1학기는 홈스테이를 했다. 홈스테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음식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두번째 학기에는 외부숙소를 구해서 지냈다.</p> <p>"SD saram"이라는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방을 구했다.</p>

식사	점심은 주로 도시락을 많이 싸 가는 문화이다. 학교에 식당이 몇개 있긴 하지만 가끔 이용하였다. 저녁은 직접 요리해서 먹거나 친구들과 식당에 가서 먹었다. 요리하는걸 좋아하기도 하고 식료품이 매우 저렴하고 또 나가서 먹게되면 무시할 수 없는 캘리포니아 물가로 인해.. 주로 해 먹었다.
교통	대부분의 미국도시와 같이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sprinter라는 지상철이 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필요할 때 이용했다. 그러나 한국 지하철과 비교불가하니 우버를 추천한다. 혹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있어서 나의 경우에는 주로 차 있는 친구가 라이드를 해주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40만원	편도 각각 70만원 선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1년에 약 80만원	국내에서 유학생 비자 구입
숙소	월 평균 800불	홈스테이, 외부 숙소
식비	월 평균 100~150불	
교통비		통학을 위한 비용은 없었음
책값	학기 평균 100불	
기타1		
기타2		
합계	약 1800~20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옷을 많이 가져가야한다. 나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옷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적게 가져갔는데 한국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이 대부분이어서 본인이 입던 옷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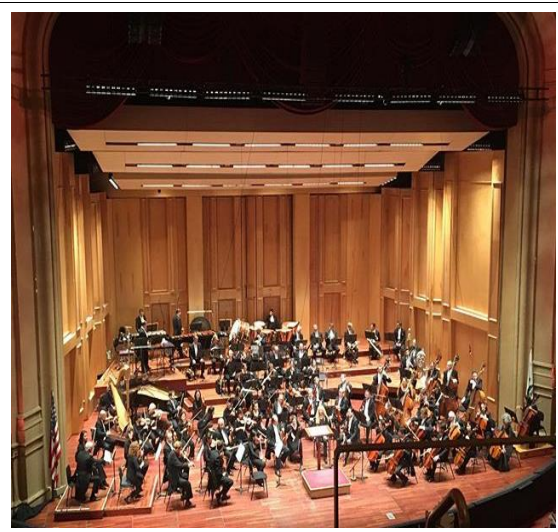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학과특성상 입학과 동시에 3학년 1학기 까지 쉼없이 달려야했던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1년의 시간이었다. 물론 처음엔 언어적인 문제로 힘들었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과제와 시험으로 피곤해 했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와야 할 시간에는 그 시간들 마저 그리워했던 기억이 있다.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나 물어보면 단연코 교환학생으로 보냈던 1년이라고 의심없이 말하고 싶다. 큰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보고 듣고 배웠던 모든것들이 소중했다. 잃은 것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른 친구들이 자격증을 따고,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것을 보고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그 1년의 시간은 그 어느것보다 값진 시간이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흔한 캘리포니아의 선셋



수업과제로 갔던 SanDiego Symphony



학교 근처 Double peak



La Jolla Beach



4th of July에 친구들과 했던 미국 게임



한국에 오기 전 뉴욕 central park